

『신티라조약에 관하여』에 나타난 워즈워스의 애국심

박 찬 길
이화여자대학교

I. 왜 애국심이 문제인가?

우리는 다시 애국심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구호인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미국 서민의 애국심을 현실정치의 수사로 끌어들이 성공한 대표적인 예이다. 장기집권으로 가고 있는 일본의 아베 수상 역시 그의 극우적 정치이념을 애국주의로 포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박정희신화’에 머물러있는 사람들이 시위현장에서 애국심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는 태극기를 선제적으로 전유함으로써 그들의 극우적 이념을 애국주의적 수사로 분식(扮飾)하고 있다. 애국심은 하나의 정치적 이념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정치적 상황에서 대중들에 의해 널리 공유되는 하나의 감성(sentiment)에 가깝다. 그 때문에 합리적인 토론을 비껴가기 쉽고, 그래서 반박하기 매우 어렵다. 애국심을 연구한 곽준혁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애국심은 민족주의가 내면

화되어 나타난 감정 상태나, 개발독재의 정치적 동원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이나, 특정 정치 집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적 슬로건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다”(312).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미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애국심의 이름으로 극우적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수구적인 인사들이 극우적 이념을 애국심으로 포장하여 선동함으로써 우리가 어렵게 성취해온 민주화의 결실들을 단박에 무효화하려는 상황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정치의 한 부분이라면, 부지불식간에 일상화되고 있는 극우적 정치 수사가 애국심을 부당하게 전유하는 상황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광교수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한다면, “배타적 민족주의의 폐해를 극복함과 동시에 . . . 공동체를 위한 자발적인 헌신을 유도할 도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 그리고 다양한 민족과 국적의 사람들이 동일한 영토 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치적 원칙이 필요하다는 인식”(311)이 필요한 시점이며, 올바른 형태의 애국심, 정치적으로 더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더 건전한 애국심의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II. 워즈워스의 애국심

정치적으로 더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더 건전한 애국심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그것을 현실정치에서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 시대, 어느 정파에든 애국심은 매우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모든 정파에서 자기

나름의 애국심을 표방하고, 그 애국심을 자기들의 정치적 캠페인에 활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현대적인 정파의 개념이 처음 자리 잡기 시작한 프랑스혁명 시대의 영국에서도 대중들의 애국심을 자기들의 정치적 우군으로 삼기 위한 각 정파의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Mori 33-34). 비국교도 목사 리처드 프라이스(Richard Price)는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으로서 ‘보편적 자애심’(universal benevolence)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시민주의적 애국심(cosmopolitan patriotism)의 필요성을 역설했다(Price 176-96).¹⁾ 이에 자극받은 보수진영의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는 프라이스가 말하는 ‘보편적 자애심’이란 일련의 프랑스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일 뿐, ‘진정한’ 애국심은 ‘이성’이 아니라 오로지 ‘역사’와 ‘시간’을 통해 만들어진 ‘깊은 애정’에서만 비롯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Espindola 121-49, Radcliffe 313-26). 보다 ‘바람직한’ 애국심을 쉽게 규정하기 어

1) 세계시민주의적 애국심은 엄밀하게 정의된 철학적·정치학적 용어가 아니며,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형용모순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 용어를 사용한 가장 최근의 예로는 Commissiong 참조. 필자는 뒤늦게 발견된 킴시송(Anand Bertrand Commissiong)의 글보다는 너쓰밤(Martha Nussbaum)의 글 『애국심과 세계시민주의』(“Patriotism and Cosmopolitanism”)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사용했다. 그 취지는 애국심이 19세기 중반 이후 확립된 민족주의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경우 애국심-민족주의가 배타적 국수주의로 변질되기 쉬웠으며, 나치즘이나 파시즘 같은 권위주의 체제와 결합하여 민족우월론과 인종차별주의로 타락한 역사적 사례가 많았음을 고려하여, 그러한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운 애국심, 즉 세계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보편적인 도덕성으로 뒷받침 된 애국심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비슷한 취지에서 광준혁 교수는 ‘민족주의 없는 애국심’(patriotism without nationalism)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공화주의적 애국심’(republican patriotism)으로 표현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어쩌면 위즈워스의 애국심을 표현하는 데에도 광 교수의 용어가 더 정확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위즈워스의 애국심의 보편적 성격을 부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포괄적인 세계시민주의적 애국심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기로 했다. 18세기말의 영국급진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밀접한 관계에 관해서는 Radcliffe 317 참조.

려운 것은 이처럼 상반된 정파적 입장들이 그 이면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가 보여줬던 ‘애국심’의 여러 형태들은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다. 워즈워스는 한때 프랑스혁명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였다가 그 전개과정에 실망하고 보수화한 당대 영국의 많은 지식인들 중 한 사람이었고, 그가 단계별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애국심’ 이면에는 당시의 다양한 정파적 입장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워즈워스의 정치적 ‘변절’은 그의 많은 저작들과 행적들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인데(Bainbridge 116-35), 시기마다 다양하게 표출되는 ‘애국심’은 이러한 ‘변절’의 원인이자 계기로 작용하거나 그 결과로 표현된다. 가령 1792년에 워즈워스가 프랑스 블로아(Blois)에서 마이클 보피(Michel Beaupuy)를 비롯한 혁명과 장교들과 교류하면서 “그렇게 곧 애국자가 되었다(thus did soon/Become a patriot)”(*Prelude* 9. 123-24)고 했을 때 그가 말했던 “애국자”는 분명히 자기의 조국인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가 만들어가고 있는 ‘공화국’에 충성하는 자였다(박찬길 214-15).²⁾ 이에 비해 영국이 워털루전투에서 나폴레옹을 몰락시킨 다음에 나온 「1816년 1월 18일, 추수감사기도를 위한 날 아침에 쓴 송가」(*Ode: The Morning of the Day Appointed for a General Thanksgiving. January 18, 1816*)³⁾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을 때 워즈워스가 염두에 뒀을 ‘애국자’는 24년 전의 ‘애국자’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물이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2) 『서곡』의 인용은 1805년판 텍스트에 의한 것이며, 이후에는 권과 행만 표시함.

3) 이하에서는 「송가」로 표기함.

오, 영국이여,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한 나라여!
 후여 그대의 모든 자손들 중 어느 하나라도
 그대의 용맹을 잊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런 배은망덕한 아들은,
 그대의 푸르른 나뭇잎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그대의 강물이 파도치는 소리도,
 절대 다시 들을 수 없도록 하라.

O Britain! dearer far than life is dear,
 If one there be
 Of all thy progeny
 Who can forget thy prowess, never more
 Be that ungrateful Son allowed to hear
 Thy green leaves rustle or thy torrents roar. (139-44)

워즈워스의 이러한 ‘변절’은 셸리를 비롯해서 많은 진보적 지식인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지만,⁴⁾ 그 ‘변절’의 계기와 내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또 그 모두가 워즈워스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극적으로 전개된 당대의 역사의 굴곡에 기인하는 면도 없지 않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워즈워스의 ‘애국심’이 이렇게 급반전되는 과정에 어떠한 역사적 계기가 있었는지, 또 그것에 워즈워스의 정치적 입장 변화가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주목하면서 워즈워스가 1808년에 썼던 정치 산문 『신티라조약에 관하여』(*Concerning the Convention of Cintra*)를 분석하기로 한다. 신티라조약(The Convention of Cintra)은 포르투갈을 침공한 프랑스군과 포르투갈의 지원군으로 참전한 영국군 사이에 맺은 휴전협약이었는데, 워즈워스와 바이런(George

4) 워즈워스의 가장 열렬한 추종자였던 셸리(Percy Bysshe Shelley)는 1818년 7월 25일에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워즈워스는 정말이지 야비하고 비열한 놈이다. 그런데 그런 자가 그렇게 좋은 시인이라니!”(Woof 987).

Gordon Byron)을 비롯한 영국의 지식인들은 이를 주도한 장군들의 무지와 협약의 무책임성에 크게 분노했었다. 워즈워스는 쾰트라조약의 불합리하고 부도덕한 조항들을 비판하면서 이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포르투갈-스페인 민중들의 ‘애국심’에 주목한다. 나폴레옹군의 압도적인 군사력에도 굴하지 않고 저항하는 그들의 ‘애국심’ 속에서 워즈워스는 자신이 16년 전 프랑스에서 목격했던 ‘보편적 자애심’이 발휘됨을 느꼈고, 그들과의 상상 속의 동지애를 통해 자유와 정의라는 공화주의의 이념적 뿌리와 재회한다. 이 글에서는 『쾰트라조약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되살아나는 워즈워스 애국심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200년 후 한국에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해보기로 한다.

III. 1800년 이전의 애국심⁵⁾

다이츠(Mary G. Dietz)에 의하면 애국심보다는 애국자(patriot)가 더 오래 전에 만들어진 말이다. 영어의 patriot은 멀리는 고대 그리스어 πατριά(patriá, ‘세대, 조상, 자손, 종족, 가족’)와 πατρις(patris, ‘조상들의 장소’)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와 같은 어원을 가진 라틴어의 파트리아(patria)가 그 기원이라고 한다. 이는 도시를 가리키는 말이었

5)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애국심에 대한 가장 원론적인 설명은 프리모레츠(Igor Primoratz)의 『애국심』(*Patriotism*)과 『스탠퍼드 철학 백과사전』(*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에 실려 있는 프리모레츠의 「애국심」(“Patriotism”) 항목을 참조할 것. 특히 이 항목의 참고문헌은 애국심에 관한 최근의 대표적 연구들을 충실하게 망라하고 있다.

는데, 정치적 공동체를 뜻하는 폴리스(*polis*)를 더 중시했던 그리스인들에게 특정한 지리적 위치를 지칭하는 파트리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심지어 파트리아에 사는 파트리오타이(*Patriotai*)는 폴리스에 사는 시민 폴리타이(*politai*)와는 구분되는 “야만인”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한다(Dietz 178).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특정지역과 연관된 사람이라는 뜻의 파트리오타이(*patriotai*)는 일종의 정치적 후진성을 전제로 한 개념이었고, 정치공동체의 단위로서 소속감과 충성심의 대상이었던 폴리스는 상대적으로 특정한 지정적 위치로부터 자유로운 개념이었다는 사실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가 “폴리스의 정체성은 그 경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런 취지였다(Dietz 178). 파트리아가 그 자체로 구성원의 충성의 대상이 된 것은 로마시대에 이르렀을 때였다. 이때의 파트리아는 지역에 대한 자연스러운 애정과 이념적 충성심이 수렴되는 곳이었고, 따라서 로마의 파트리아는 현대적인 의미의 ‘애국심’의 대상에 가장 근접하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로마는 ‘공통의 파트리아’(*communis patria*)로서 실제로 사는 곳과 상관없이 모든 로마인이 충성을 바쳐야 할 조국(祖國)에 해당되는 개념이었다. 이후 로마제국이 확장되면서 파트리아는 어떤 특정한 지역과 연관되기보다는 일종의 정신적 공동체로 이해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그중에서도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Stoics)들은 그러한 정신적 공동체를 훨씬 더 확장시켜서 시민들의 조국을 지구상의 특정한 지점이 아니라 ‘우주’로까지 확장시켰다. 따라서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파트리아란 모든 인류가 속하는 전지구적 공동체를 뜻했고, 이들이 말하는 파트리오타이

의 충성심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주 전체를 향한 것이었다.

파트리아가 특정한 지역과 그에 대한 배타적인 애착과 멀어지게 된 또 다른 계기는 바로 기독교였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충성을 바치고 동경해야 할 지역은 자신이 태어난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 천국의 도시였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애국심에 흔히 결부되는 고향, 조국에 대한 충성과 희생과 같은 개념이 조금 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12-13세기에 왕을 중심으로 한 ‘왕국’이 형성되면서부터였는데, 이때에도 충성의 대상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라기보다는 국가와 동일시되는 왕 자체였다. 즉 애국심은 지역으로서의 국가가 아니라 왕이라는 특정한 개인에게로 향한 것이었다(Dietz 177-82).

IV. 18세기 영국의 애국심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의 문헌에서 애국심의 언어를 분석한 커닝엄(Hugh Cunningham)에 의하면 18세기에 다시 부각되기 시작한 애국심에 관한 논의에는 대략 세 가지의 연원이 있었다(10). 국가의 권력구조에 있어서 ‘균형의 미덕’을 강조하면서 왕권과 귀족들 사이의 권력분점을 강조했던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가 하나인데, 그의 입장은 주로 명예혁명 이후 왕권의 강화를 경계하는 귀족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념적 논거로 주로 활용되었다. 또 하나는 토리(Tory)였던 볼링브록크(Henry St John, 1st Viscount Bolingbroke)였는데, 그는 왕당파의 입장에서 ‘애국자 왕’(a Patriot King)이라는 개념을 재치 있게 만들어 내어 유통시켰다. 사실 이전의 왕은 애국심의

‘대상’이었는데, 볼링브로크는 왕을 애국심의 ‘주체’로 탈바꿈시켰다. 왕은 귀족들의 당파정치에 휘말리지 않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불편부당하게 섬긴다는 뜻에서 진정한 ‘애국자’라는 것이다(Griffin 17-18). 이것은 토리 쪽이 어떻든 애국심을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으로 끌어오려는 절박한 시도였지만, 결국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볼링브로크 이후에는 정부에 대한 모든 저항을 ‘애국심’의 발로로 인식하는 경향이 생겨났다(Dietz 186). 마지막 하나는 소위 노르만굴레 이론(Norman Yoke Theory)으로서 영국에서 왕이나 정부에 의해 국민들의 자유가 억압되기 시작한 것은 노르만정복 이후라는 오래된 신화이다. 이 신화에 따르면 노르만정복 이전인 색슨왕조 때는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자유와 인권을 누린 황금시대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고대의 영국적 자유’(Ancient English Liberty)라고 부른다. 즉 영국에서 자유를 위한 모든 투쟁은 과거에 그들이 천부인 권으로 누렸던 정치적 자유를 ‘회복’하려는 시도라는 것이고, 왕권에 대항하는 그들의 투쟁은 노르만이 제거한 영국적 본질을 되찾으려는 시도라는 뜻에서 ‘애국적’인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명예혁명 이후 영국의 정치적 언술에서 애국심은 대체로 급진적인 휘그(The Radical Whig)의 이념이었고, 볼링브로크를 제외하고는 ‘애국자’를 왕의 폭정과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우는 자유의 투사로 이해하는 데 토를 다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Dietz 168, Brownlow 289-92). 그들은 찰스 1세(Charles I)에 맞서 청교도 혁명의 와중에 전사한 햄든(John Hampden)이나 찰스 2세(Charles II)에 맞서서 왕권신수설을 부정하는 공화주의적 이론을 펼치다가 반역죄로 처형된 시드

니(Algernon Sidney) 같은 사람을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자’로 숭배했다. 하지만 17세기 말과 18세기 전체에 걸쳐서 애국심을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으로 차지하려는 토리-휘그의 경쟁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다. 가령 우리가 잘 아는 드라이든(John Dryden)은 골수 토리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1681년에는 ‘애국자의 현대적 의미는 법으로 왕자를 대신하고자 하는 자’라고 폄훼했다가 1699년에는 애국자를 ‘왕과 나라를 섬기고, 특권과 특혜를 보호하는 자’로 추켜세운 바 있다. 역시 토리적 입장을 견지했던 포우프(Alexander Pope)도 1716년에는 ‘정직한 대신이지만 애국자였던 사람’을 ‘자신이 섬기는 왕자와 나라에만 충실한 자’로 추켜세웠다가 훗날 ‘애국자는 어느 시대에나 바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영어사전을 편찬한 존슨(Samuel Johnson)은 토리-휘그의 경쟁의 최종적 결말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인데, 1755년에는 애국자를 ‘가장 중요한 정열이 나라를 사랑하는 데 바쳐지는 자’라고 중립적으로 표현했다가 1773년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당파적으로 정부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덧붙였지만 바로 2년 뒤인 1775년에는 애국심을 ‘불한당들의 마지막 은신처’라며 일소에 부쳤다. 대체로 토리적인 입장이었던 이러한 대표적 문인들의 언급들은 18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애국심에 대한 지배력이 압도적으로 급진적 휘그 쪽으로 모아졌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Griffin 16-33, Cunningham 9-13).

V. 1790년대 영국의 애국심 논쟁: 프라이스와 버크

커닝엄에 의하면 프랑스혁명의 발발 이전까지 18세기 내내 영국에서는 ‘애국자’라는 말이 ‘자유의 친구들’(Friends of Liberty)과 거의 동의어가 되었고, 급진적 휘그(radical whig)가 전통적인 영국적 자유를 수호하고자 했다는 뜻에서 가장 전형적인 ‘애국자’로 받아들여졌다(9-13, Colley 182). 하지만 프랑스혁명이 발발하면서 이러한 영국적 ‘애국자’는 영불전쟁이라는 국제적 환경에서 새롭게 규정되어야 했고, 이런 점에서 비국교도 목사였던 프라이스와 보수적 휘그의 거물 버크가 벌였던 논쟁은 새로운 ‘애국자’ 개념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Griffin 32, Brownlow 293-95). 진보진영의 프라이스는 1789년 11월 4일에 영국혁명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에 관한 논설」(“A Discourse on the Love of Our Country”)에서 이 시대의 애국심은 자기 나라나 민족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애정이 아니라 “보편적 자애심”에 기반을 두고 인류라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80). 프라이스가 말하는 ‘우리나라’는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땅 혹은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프라이스에게 애국심이란 세계시민주의의 도덕적 원칙이었다.

우리가 당장에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관심을 쏟아야 하더라도 . . . 더 좁은 이익은 더 넓은 이익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 . 우리는 우리나라를 열렬히 사랑해야 하지만, 오로지 그것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 . .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지만 . . . 동시에 우리 자신을 세계의 시민으로 간주해야 하고, 다른 나라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합당한 관심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Though our immediate attention must be employed in promoting our own interest . . . yet we must remember that a narrower interest ought always to give way to a more extensive interest . . . we should love it ardently, but not exclusively. . . . We ought to seek its good . . . but at the same time we ought to consider ourselves as citizens of the world, and take care to maintain a just regard to the rights of other countries. (180-81)

이에 자극받은 버크는 그의 유명한 『프랑스혁명에 관한 고찰』(*Reflections on the Revolutions in France*)에서 영국의 민주주의 전통과 지역적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보수적 애국심으로 이에 대항했다(183-85). 에스핀돌라(Juan Espindola)는 버크의 “기사도적”(chivalric) 애국심이 “문화적이고 지역적인 충성심에 근거한 것이며 속속들이 감정적이고 미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135). 버크의 입장을 1790년대의 애국심 논쟁의 맥락에서 분석한 래드클리프(Evan Radcliffe)는 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버크가 상대하는 진짜 적은 . . . 특정한 나라나 집단이 아니라 세계시민주의이다. 세계시민주의는 모든 애국심을 위협하며, [특히] 프랑스의 세계시민주의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 . . 버크는 자기가 추상적 개념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보편적 애국심과는 달리 광범위한 애정은 어떤 것이든 이론적 연관관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역적 애정에 근거한다고 강변한다.

Burke's true opponent . . . is not a particular country or group, but cosmopolitanism: cosmopolitanism threatens all patriotism, and French cosmopolitanism threatens all European countries. . . . Against what he perceives as the abstraction of universal benevolence, Burke insists that any extensive affection must be based not on theoretical connections but on concrete local attachments. (326-27)

이들의 논쟁은 물론 프랑스혁명에 대한 상반된 해석을 내용으로 하는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적 투쟁의 일환이었다. 프라이스는 급진적 휘그의 ‘영국적 자유’를 영국의 국경을 넘어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정치적 자유로 확대 해석하고자 했고, 버크는 ‘영국적 자유’의 토착적 기반을 강조하면서 급진주의자들이 영국인의 전통적인 애국심을 자기들의 이념적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VI. 코올리지의 “현대적” 애국심

이러한 논쟁의 맥락에서 급진주의 개혁가이자 워즈워스의 문학적 동반자였던 코올리지(Samuel Taylor Coleridge)는 1796년 3월 17일자 『파수꾼』(*The Watchman*)에 실린 「현대적 애국심」(“Modern Patriotism”)이라는 글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진정한’ 애국심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나는 당신들의 애국심을 의심합니다. 당신들은 노예무역을 반대하는 장광설을 늘어놓습니다. 당신들은 현재의 기근을 전쟁 때문이라고 탓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가발을 쓰고 파이와 설탕을 먹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애국심과 자선심을 위해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주재님은 일이 되겠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겠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전체의 선(善)이 각 개인에게 실현될 수 있는 최대의 선(善)이라는 것, **그러므로**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은 당신의 의무라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이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I doubt your Patriotism. You harangue against the Slave-Trade; you attribute the present scarcity to the war-yet you wear powder, and eat pies and sugar! Your patriotism and philanthropy cost you very little. If I might presume so far, I would inform *how* you might become a Patriot. Your *heart* must believe, that the good of the whole is the greatest possible good of each individual: that *therefore* it is your duty to be just, because it is your *interest*. (73, 원문 강조)

코올리지가 여기서 겨냥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입장에서 애국자를 자처하고 있지만 프라이스가 말했던 ‘보편적 자애심’이 아니라 여전히 영국의 정치적 전통에 대한 우월감과 계급적 편견에 갇혀있었던 중산층 개혁가들이었다. 이들은 고드윈(William Godwin)의 『정치적 정의』(*Political Justice*)를 읽고, 이론적으로는 인류의 평등과 해방을 주장하지만 코올리지가 보기에 이들의 이론적 주장은 ‘보편적 자애심’에 대한 진솔한 믿음, 즉 세계시민으로서 인류 공동체에 대해 가져야 하는 진정한 애정을 결핍하고 있고, 그 때문에 그들의 ‘애국심’은 가짜라는 것이었다.⁶⁾ 특히 이 글을 발표했던 1796년의 시점은 로

베스삐에르(Maximilien Robespierre)의 공포정치를 경험한 이후였기 때문에 애당초 혁명을 지지했던 영국의 개혁가들 사이에서조차 반프랑스적 정서가 고개를 들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휘그적인 전통적 ‘애국심’이 버크의 경우에서처럼 매우 국수적인(chauvinistic) 정치 논리로 탈바꿈할 위험이 컸다(Cunningham 14, Cottrell 260-69). 진보진영의 입장에서는 영불전쟁의 국면에서도 ‘애국심’을 진보진영의 이념적 자산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급적 편견과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 프라이스가 말한 “보편적 자애심”을 진정한 ‘애국심’의 조건으로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울리지가 말했던 “현대적 애국심”이란 특정한 계급이나 지역·국가가 아니라 인류 공동체 전체의 선을 자신의 이익으로 받아들이는 세계시민주의를 전제로 한다(Magnuson 63). 코울리지는 어설픈 고드윈주의자들을 의식하여 ‘이익’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 ‘이익’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좁은 이해관계보다는 인류 전체를 향한 보편적인 선을 우선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애국심’은 계급과 지역적 연고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그 자체로 선이며 그것을 따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프랑스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영국 본토에 대한 프랑스의 침략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세계시민주의를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국내적인 위기상

6) 매그너슨(Paul Magnuson)은 『한밤중의 서리』(“Frost at Midnight”)에 나타난 코울리지의 가족애를 1790년대의 급진주의자-반자코뱅주의자 논쟁의 맥락에서 정치적으로 읽어낸다. 매그너슨에 의하면 코울리지의 ‘애국심’은 버크의 애국심처럼 가족애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정치적 의도는 버크가 아니라 철저하게 프라이스의 “보편적 자애심”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63-64).

황에서는 버크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왕과 교회를 지지한 군중들”(Church and King mobs)조차 대중들의 반프랑스 정서를 이용하여 정부를 지지하는 자신들의 캠페인을 진정한 ‘애국심’으로 포장하기도 했다(Cunningham 14, Griffin 33, Cottrell 265-69). 그리고 이러한 작전은 당시의 현실정치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다. 왜냐하면 전쟁 상황에서는 명예혁명 이후 줄곧 ‘애국자’의 대명사로 통했던 개혁가들이라도 교전중인 적에 동조하는 ‘반역자’로 낙인찍기만 하면 곧바로 퇴출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Cottrell 260-65).

VII. 워즈워스 『서곡』의 애국심과 버크적인 수사법

앞서 말했듯이 워즈워스가 『서곡』에서 1792년을 회고하며 자신이 프랑스인 공화주의자들과 교류하며 ‘애국자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애국자’는 당연히 프라이스가 말했던 ‘보편적 자애심’을 가진 세계시민으로서의 애국자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몇 달 후, 영불전쟁이 발발한 이후 수천 명의 영국군이 프랑스 혁명군에 의해 궤멸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애국자 워즈워스가 느꼈던 감정적 혼란은 프라이스와 코올리지가 주장했던 세계시민적 애국심을 유지하는 일이 당대 영국의 현실정치의 맥락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한다.

정말이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다시 태어난 프랑스를
 처음부터 매우 곱지 않은 눈으로 보아왔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그래서 언젠가 이런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오로지 일반적인 이해관계만 고려했지
 한 번도 그 이상으로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버렸다.
 왜냐하면 나는 극도로 본성에 반하는 싸움의 황폐함을
 내 마음 속에서 느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거운 추처럼 내 마음에 내려앉아
 내 즐거움의 가장 민감한 원천을 틀어막았다.
 나는 사랑하는 우리나라, 그 축복받은 나무에서 돌아난
 한 장의 푸르른 나뭇잎으로, 산들바람에 흔들리면서,
 거기서 그렇게 시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은 팔자를 바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행복했던 처지로부터 단절된 채
 소용돌이에 휘감겨 돌고 있었다.
 수천 명의 영국인들이 패퇴하여 불명예 속에 전쟁터에 남겨나,
 아 용기 있는 자들이었지만,
 부끄럽게 도망가는 처지에 내몰리게 되었을 때
 나는 기뻐했다. 그래, 기록하기 괴로운 진실이지만,
 나중에는 내 영혼의 승리에 고양되기도 했다.
 그것은 슬픔이었다. 하지만 그걸 슬픔이라 부르지 말라.
 그건 결코 슬픔이 아니었고,
 이름 지을 수 없는 감각의 혼란이었다.
 그런 마음은 나처럼 마을의 교회침탑의 모습을
 사랑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
 그 교회 안에서는 신자들이 그들의 위대한 아버지 앞에 몸을 숙여
 우리나라의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거나 그 승리를 찬양했었다.
 나는 가끔씩 그러한 순진한 신도들 속에
 아무도 아는 척 않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잠자코 앉아서,
 오로지 나만이 앞으로 다가올 복수의 나날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사실도 덧붙여 말해야겠지?

True it is,
 'Twas not concealed with what ungracious eyes
 our native rulers from the very first
 Had looked upon regenerated France,
 Nor had I doubted that this day would come.
 But in such contemplation I had thought
 Of general interests only, beyond this
 Had [never] once foretasted the event.
 Now had I other business for I felt
 The ravage of this most unnatural strife
 In my own heart; there lay it like a weight
 At enmity with all the tenderest springs
 Of my enjoyments. I, who with the breeze
 Had played, a green leaf on the blessèd tree
 Of my belovèd country, nor had wished
 For happier fortune than to wither there,
 Now from my pleasant station was cut off
 And tossed about in whirlwinds. I rejoiced,
 Yea, afterwards—truth most painful to record!—
 Exulted in the triumph of my soul
 When Englishmen by thousands were o'erthrown,
 Left without glory on the field, or driven,
 Brave hearts! to shameful flight. It was a grief,
 Grief call it not, 'twas anything but that,—
 A conflict of sensations without name.
 Of which he only who may love the sight
 Of a village steeple, as I do, can judge,
 When in the congregation bending all
 To their great Father, prayers were offered up,
 Or praises for our country's victories;
 And, 'mid the simple worshippers, perchance,
 I only, like an uninvited guest
 Whom no one owned, sate silent, shall I add,
 Fed on the day of vengeance yet to come? (10. 242-75)

이 대목은 1793년 9월 8일에 발생했던 온스꾸뜨(Hondeschoote) 전투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참패가 전해졌을 때의 상황을 회상하는 대목이다(Moorman 224).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워즈워스의 급진주의적 공화주의가 거의 손상되지 않았을 때였지만 워즈워스가 이 대목을 썼던 1804년에는 이미 워즈워스가 프랑스에 대한 신뢰를 거의 모두 잃어버린 이후였다.⁷⁾ 이때에는 이미 영불전쟁을 “극도로 본성에 반하는 싸움”이라고 묘사할 만큼 버크적인 수사법에 기울어있을 때였다(Cronin 35, Connell 759-64). 워즈워스는 영불전쟁이 혁명수호전쟁에서 나폴레옹의 정복전쟁으로 변질된 이후에는 적어도 전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영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이 달라져 있었다(Cronin 41-42). 바로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공화주의자 시절을 회상하는 것이 ‘기록하기 괴로운 진실’이었고, 이때가 되면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나라, 그 축복받은 나무에서 돌아난 푸르른 나뭇잎’이라고 비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마을의 교회침탑의 모습을 사랑하는 자’라고 규정하는 데 거침이 없었다. 이것은 애국심을 가족에 대한 사랑과 지역적 애정에 의거하여 규정하는 버크의 전형적인 수사법이며, 영국에 대한 애정을 ‘그대의 푸르른 나뭇잎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로 확인하는 1816년 「송가」의 애국심을 예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를 괴로운 심정으로 회상하는 1804년 워즈워스의 ‘애국심’은 분명히 프라이스보다

7) 물론 이 시기 워즈워스의 ‘변절’의 정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가령 톰슨(E. P. Thompson)은 아미앵조약(Treaty of Amiens, 1802) 이후에도 그가 “몹살맞은 민주주의자”(an odious democrat)로 남아있었고, 그 전후로 쓴 시에서는 여전히 “좌파”적인 입장을 가진 프랑스혁명 비판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했다(94).

는 버크 쪽으로 치우쳐진 애국심이었다. 하지만 1808년 11월에 쓰기 시작한 정치 산문 『쾨트라조약에 관하여』에서는 이것과는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애국심이 드러난다. 1808년 5월, 나폴레옹의 스페인침공에 맞서서 봉기한 스페인 민중들의 투쟁은 그동안 잠들어 있었던 공화주의와 세계시민주의를 극적으로 일깨웠으며, 워즈워스는 나폴레옹군의 침공에 맞서 싸운 스페인 민중들과 자신을 상상 속에서 동일시하면서 앞의 인용에서 부끄러운 기억으로 반추하는 세계시민주의의 신념을 당당하게 회복한다(Green 935-46, Coleman 160). 『쾨트라조약에 관하여』을 썼던 1808년에는 워즈워스의 정치적 관점이 상당부분 보수화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애국심’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쾨트라조약에 관하여』에서 드러난 워즈워스의 애국심은 이전의 공화주의적 열정을 상당부분 회복하고 있으며, 그 핵심적인 내용에서 코올리지가 주장했던 ‘현대적 애국심’, 즉 세계시민주의적 애국심을 전형적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III. 『쾨트라조약에 관하여』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

나폴레옹은 1807년 11월 19-30일에 쥘노(Jean-Andoche Junot) 장군의 지휘 하에 포르투갈을 침공했고,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수도 리스본을 점령했다. 당시 섭정왕자로서 실질적인 국가원수였던 자오(Joao VI, Prince Regent)는 곧바로 브라질로 도피했다. 포르투갈의 민중들은 이듬해 영국군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군에 저항했다. 나폴레옹은 포르투갈 침공 때 스페인을 끌어들었지만 사실 이베리아반도 전체를 지배

하는 것이 그의 복심이었다. 나폴레옹의 야욕은 곧 실체를 드러냈고 스페인 왕가는 왕과 왕자 사이에 불쌍사나운 권력다툼 끝에 결국 나폴레옹의 동생 조지프(Joseph)에게 스페인의 왕위를 갖다 바치는 참담한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분노한 마드리드의 시민들은 1808년 5월 2일 프랑스군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곧 잔인하게 진압되었다. 프랑스군의 탄압은 잔혹했지만 이 사건은 이후 스페인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된 민중적 저항의 기폭제가 되었는데, 1808년 5월 2일의 봉기와 3일에 있었던 마드리드 시민의 잔인한 처형장면은 스페인 화가 고야(Francisco Goya)에 의해 인상적으로 기록된 바 있다.

그렇다면 쥘리아조약은 무엇이었는가? 쥘리아조약은 1808년 8월 30일에 영국 지원군 장군들과 프랑스군 사령관 사이에 조인된 일시적인 종전협약이다. 슈노장군 지휘하의 프랑스군은 1808년 8월 21일에 있었던 역사적인 비메이로(Vimeiro) 전투에서 아서 웰즐리(Arthur Wellesley), 훗날의 웰링턴 공작(Duke of Wellington)에게 완전히 패했다. 웰즐리는 계속 진격하여 프랑스군을 완전히 궤멸시킬 수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영국 본국에서 갑자기 파견된 두 장군 달림플(Sir Hew Dalrymple)과 버라드(Sir Hary Burrard)은 전투를 중지시켰고, 프랑스군이 제안한 종전조건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종전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것은 영국의 입장에서, 당사자인 포르투갈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조약이었다. 달림플은 20,900명에 달하는 프랑스 병사들이 그들의 무기와 그동안 약탈한 모든 물건들을 그대로 가진 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것도 영국의 배를 수송수단으로 제공하기까지 하면서

그들의 무사귀환을 도운 것이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종전(終戰)의 방식은 포르투갈은 물론 영국의 여론도 들끓게 했다. 심지어 영국 왕 조지 3세조차도 이 협약에 대한 ‘불만’(disapprobation)을 표명했고, 그 결과 협상을 주도했던 두 장군과 웰즐리는 본국에 송환되어 공개청문회에 나가야 했다. 영국의 전쟁사에 정통한 마이클 글로버(Michael Glover)는 “승전하여 모든 면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던 군대가 패배한 적에게 그토록 많이 주고,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적은 것을 갖도록 하는 협약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Gravil 18). 영국에서도 바보 같은 협약과 그 주도자들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지만, 청문회의 결과는 두 장군의 조용한 은퇴와 웰즐리의 신속한 전장복귀일 뿐이었다. 청문회는 관련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끝난 셈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워즈워스는 분노했다. 그는 코울리지, 싸우디(Robert Southey)와 함께 공개적인 항의집회를 계획했지만 당시 그의 후원자였던 론즈데일 경(Lord Londsdale)이 개입하여 최후의 순간에 이를 무산시켰다.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워즈워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썼던 모든 글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급진적인 정치 팜플렛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Gravil 16-29).

IX. 『썬트라조약에 관하여』와 워즈워스의 애국심: 공화주의와 세계시민주의

워즈워스가 『서곡』을 쓰면서 버크를 연상시키는 보수적 애국심을 내비친 것은 워즈워스의 정치적 입장이 급격히 보수화되어서가 아니

라 영불전쟁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었다(Bromwich 604).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한 1804년 12월 2일 이후에 벌어지는 영불전쟁은 더 이상 공화주의와 군주제 사이의 체제대립이 아니라 나폴레옹의 정복전쟁일 뿐이었다. 따라서 정복군주 나폴레옹에 대항한 싸움은 이제 영국에서도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서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 공화주의자들에게는 프라이스의 “보편적 자애심”이 여전히 소중한 가치였지만 유럽의 각국을 차례로 정복하여 자신의 가족들에게 왕좌를 선물하는 나폴레옹의 체제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긍정적인 정치적 가치도 결부시키기 어려웠다. 오히려 프랑스의 독재자가 스스로 프랑스혁명의 이념을 배반한 이상 그에 대한 투쟁이 오히려 세계시민적 애국심에 부합하는 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국제적 정세에서는 진보진영에서도 영불전쟁을 “정당하고 필요한”(just and necessary, 71행) 전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뜬금없이 체결된 쉰트라조약에서는 영국정부 스스로가 전쟁의 상대인 나폴레옹군과 편의적으로 야합함으로써 스스로 그러한 명분을 저버리는 꼴이 되었고, 이것은 워즈워스로 하여금 『서곡』에서 내비친 바 있는 버크적인 애국심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재고하도록 만들었다.⁸⁾ 나폴레옹군에 대항하여 봉기한 스페인 민중들은 워즈워스의 세계시민주의적 애국심을 일깨우면서 다시 한번 “보편적 자애심”을 불러일으켰다. 워즈워스는 이들이야말로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박탈하려는 침략군에 대한 저항을 통해 “보편적 도덕성에 대한 고양된 생각들”(these

8) 『쉰트라조약에 관하여』의 본문 인용은 Grivil 외 2인의 2009년 편집본을 사용하고, 이하에서는 행수만 표시함.

sentiments of universal morality, 875)을 보여주었으며, 그것이 그들만이 아니라 “인류전체에 직접적이고도 보편적으로 연관되는 일”(direct and universal concern to mankind, 876)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들의 명분과 도덕성은 워즈워스가 인용한 그들 자신의 선언문에 가장 잘 나타난다.

스페인에 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의명분에 있어서 과거에 발생했던 어떤 치명적인 전쟁에서보다도 더 정당하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당장의 관심사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시대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싸운다. 스페인은 고립된 하나의 특권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권리를 위해,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위해 싸운다. 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 심지어 프랑스를 위해서도 싸운다.

Spain will inevitably conquer, in a cause the most just that has ever raised the deadly weapon of war; for she fights, not for the concerns of a day, but for the security and happiness of ages; not for an insulated privilege, but for the rights of human nature; not for temporal blessings, but for eternal happiness; not for the benefit of one nation, but for all mankind, and even for France herself. (852-57)

워즈워스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민중들의 싸움 속에서 나폴레옹으로 인해 상실했던 프랑스 혁명의 이념들을 다시 발견했고, 이들 안에서 진정으로 세계시민적 애국심이 발휘되고 있음을 느꼈다(Green 939). 이들의 투쟁으로 말미암아 워즈워스에게 나폴레옹전쟁은 다시 ‘자유와 정의를 위한 원칙들’(those principles of liberty and justice)을

위해 싸우는 이념적 전쟁이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이념전쟁은 더 이상 그들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영국과 위즈워스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

그에 비례해서 우리의 지성이 일깨워졌다. 우리는 인류의 기록들을 자랑스럽게 뒤돌아보았고, 두려움 대신 기쁨을 느끼며 미래를 내다보았다. 인간 마음의 가장 성스러운 감정들에서 비롯된 이 갓 태어난 저항정신은 많은 나라들로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평무사하고 너그러운, 그리고 그만큼 담대한 그 희망들은 먼 훗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에도 해당되는 것이었다.

We were intellectualized also in proportion: we looked backward upon the records of the human race with pride, and, instead of being afraid, we delighted to look forward into futurity. It was imagined that this new-born spirit of resistance, rising from the most sacred feelings of the human heart, would diffuse itself through many countries; and not merely for the distant future, but for the present, hopes were entertained as bold as they were disinterested and generous. (140-46)

혁명의 명분이 아직 프랑스에 있었을 때 위즈워스는 자신의 애국심의 발휘를 놓고 생물학적 조국과 이념적 조국 사이에 양자택일을 강요당했다. 그런데 쉐트라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한편으로 나폴레옹을 타도함으로써 훼손된 공화주의를 되살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이끌고 나갈 도덕적 명분을 완전히 상실한 영국정부를 동시에 비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영국 국내에서도 개혁의 의제를 다시 이끌어낼 수 있었다(Bromwich 606). 위즈워스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에서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곧바로 영국의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믿었고, 이것은 ‘진정한’ 애국심을 둘러싼 도덕적 고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것은 프라이스의 세계시민주의적 애국심의 복원을 뜻했다.

워즈워스가 『썬트라조약에 관하여』에서 세계시민주의적 애국심을 회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 보편적인 자유와 정의의 문제를 이른바 배타적인 ‘국익’의 문제로 덮어버리는 보수주의자들의 계락을 이 조약을 둘러싼 영국 지배층의 행태를 통해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엄청난 군사력의 정점에 있는 장군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줄 알았다. 썬트라조약 같은 것에 대한 서명은 [당연히] 거부할 줄 알았고, 이 모든 것을 ‘영국의 국익’을 위해 결정했다고 (조사위원회의 녹취록을 보라!) 말하지 않을 줄 알았다. 또 동맹국의 조약문이라도 그 내용을 정하는 . . . 유일한 혹은 주된 원칙이 오로지 동맹국의 이익과 상반되는 ‘우리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줄 알았다. 나는 [영국의] 장군과 [영국의] 대신의 정책은 더 큰 범위를 가진 것이어서 영국의 진정한 복지는 [영국 자신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독립과 자유, 명예를 높임으로써 최고로 증진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로지 이런 미덕들을 확산하고 우세하게 만들어야만 프랑스의 폭정이 결정적으로 줄어들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프랑스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I have presumed that a General might be placed at the head of this great military power who would not sign a Treaty like that of the Convention of Cintra, and say (look at the proceedings of the

Board of Inquiry) that he was determined to this by “British interests;” or frame *any* treaty in the country of an Ally . . . to which the sole, or even the main, inducement was-our interests contra-distinguished from those of that Ally; —a General and a Ministry whose policy would be comprehensive enough to perceive that the true welfare of Britain is best promoted by the independence, freedom, and honour of other Nations; and that it is only by the diffusion and prevalence of these virtues that French Tyranny can be ultimately reduced; or the influence of France over the rest of Europe brought within its natural and reasonable limits. (3345-57)

워즈워스의 바람과는 달리 달림플과 버라드라는 영국의 두 장군들은 워즈워스가 우려하던 바를 그대로 말해버렸고, 영국정부의 정책은 워즈워스의 기대와는 달리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 이외에 어떤 명분도 없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워즈워스를 비롯한 많은 영국의 지식인들이 분노한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 이것은 일찍이 프라이스가 말했던 세계시민주의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국 민주주의의 선진성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자부심을 배반했기 때문이었다. 워즈워스는 달림플과 버라드 같은 영국의 지배층이 쉰트라조약을 맺으면서 드러낸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 보수주의자들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언급하는 ‘한 나라의 이익’, 즉 ‘국익’이라는 것이 그 나라 전체의 이익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국익’이 다른 나라의 이익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자기나라 민중의 이익과도 상반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워즈워스는 이를 통해 한 나라의 민중(the people)과 국민(the nation)이

동일한 말이 아닐 수 있으며,⁹⁾ 이른바 그 ‘국익’이라는 것도 타락한 지배층¹⁰⁾이 아니라 그들이 입버릇처럼 들먹이는 ‘국익’에서 배제되기 일췌인 민중들에 의해 더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 . . 포르투갈 사람들은 용맹한 민중이다. 위대한 용기와 가치를 가진 민중! . . . 이웃에 있는 스페인 사람들처럼 그들은 보편타당하게, 열정적이면서도 두려움 없이 [나폴레옹을 몰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최종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그동안 지구상에서 보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만나 그 압력을 견디면서도 그에 맞서 [당당하게] 봉기하는 그 행동 자체는 그들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포괄적인 근거가 된다. 그건 초월적인 영광이었다.

. . . the Portuguese are a brave people-a people of great courage and worth! . . . In common with their neighbours the Spaniards, they were making a universal, zealous, and fearless effort; and, whatever may be the final issue, the very act of having risen under the pressure and in the face of the most tremendous military power which the earth has ever seen-is itself evidence in their favour, the strongest and most comprehensive which can be given; a transcendent glory! (2070-79)

9) “민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1815년 서문에 대한 보충적 논의』(“Essay Supplementary to the Preface of 1815”)에서 자신이 시를 쓸 때 진짜로 염두에 두어야 할 “민중”과 독서시장에서 만나게 되는 “대중”(the public)을 구분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Green 957).

10) 이때 워즈워스가 염두에 두었을 “지배층”은 영국의 경우에는 쉘트라조약을 체결한 달림플과 버라드, 포르투갈은 나폴레옹이 쳐들어오자마자 브라질로 도망간 섭정왕자 자오, 스페인은 아들과 어리석은 왕위다툼을 벌이다 왕위를 나폴레옹에게 뺏겼던 페르디난드 7세(Ferdinand VII), 포르투갈의 1/3을 주겠다는 약속에 속아 나폴레옹에게 국경을 개방한 고도이(Manuel Godoy) 같은 인물들이다.

워즈워스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민중의 용감한 투쟁을 통해 민중의 위대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Green 950). 버크는 ‘보편적 자애심’을 ‘추상적 개념’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진정한 애국심은 지역적 연대에 근거한 토착적 정서에서 비롯된다고 강변했지만, ‘국익’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진정한 민중적 이익을 배반하고 국제적으로는 오로지 다른 나라와의 적대적 이해상충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도덕적으로 타락한 지배층이었다.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중’의 이익을 마치 자기의 이익처럼 진심으로 추구하지 않는 한, 아무리 고드윈의 철학적 급진주의를 신봉하는 개혁가라고 해도,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코울리지의 주장이었다면, 워즈워스는 스페인-포르투갈 민중의 용감한 저항운동을 목격하면서 바로 그러한 애국자의 모습에 가장 접근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모름지기 ‘보편적 자애심’을 가진 ‘자유친구’라고 자처하는 개혁가라면 지배자들이 말하는 추상적인 ‘국익’이 아니라 민중의 이익을 우선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과 동일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국익의 증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Coleman 152-54). 사실 이러한 깨달음은 공화주의자 워즈워스에게 사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지만(Green 943-51), 스페인-포르투갈의 저항운동은 워즈워스로 하여금 정체(polity)로서의 공화국의 가치와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Vincent 55-56, 58).

그들[스페인 민중들이 자치적으로 구성한 지역정부]은 탄압의 상태에 있는 이런 구역에 존재하는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민중

의 이해관계를 안전하게 확보하려면 그것이 민중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민중의 손 안에 [직접] 맡겨져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결국 같은 것이 되겠지만) 민중의 이해관계는 진정으로 민중 **으로부터** 비롯되고, 충실하게 민중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의 관리 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they (the provincial Junta) have shewn that the cause of the People, in dangers and difficulties issuing from this quarter of oppression, is safe while it remains not only in the bosom but in the hands of the People; or (what amounts to the same thing) in those of a government which being truly *from* the People, is faithfully *for* them. (3488-92, 원문 강조)

이것은 물론 나폴레옹군에 게릴라전으로 대항하는 당시의 스페인에 한 해당되는 말은 아니었다. 워즈워스에게 있어서 스페인 민중의 저항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며, 인류 전체를 위한 싸움이었다(2660). 워즈워스는 이런 맥락에서 영국 지배층에게도 민중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권유했고(3066), 프랑스가 그 압도적인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군사적으로 정복된 나라의 민중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3590). 워즈워스는 스페인 민중들의 투쟁이 가진 의미를 추적하다가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가 ‘민족자결주의’라고 부르는 민족주의의 원칙에까지 도달하게 된다.¹¹⁾

11) 『신프트라조약에 관하여』의 1915년판 편집자인 디시(A. V. Dicey)는 여기에서 나타난 민족의 독립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워즈워스의 인식이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을 통하여 민족주의가 하나의 정치적 이념으로서 정립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민족주의의 핵심적 내용을 예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xxiv-iiiv).

이것[스페인의 독립]은 . . .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며 앞으로도 주인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떼어놓을 수 없는 한결같은 결심이 스페인사람들의 영혼 속에 존재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스스로를 인간의 반열에 놓고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결심이며 누가 풀밭으로 몰고 나가주기만 하면 주인이 누구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금수(禽獸)가 될 수는 없다는 결심이다. 국민이 자유롭지 않으면, 그 노예상태가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이든 외국에서 온 것이든,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든 타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든, 마치 저울 위의 먼지처럼 어떤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 소위 시민적 자유를 사랑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시민적 자유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종의 상식으로 통하는 얘기이다.

This cannot be accomplished . . . without an accompanying and inseparable resolution, in the souls of the Spaniards, to be and remain their own masters: that is, to preserve themselves in the rank of Men: and not become as the Brute that is driven to the pasture, and cares not who owns him. It is a common saying among those who profess to be lovers of civil liberty, and give themselves some credit for understanding it, -that, if a Nation be not free, it is mere dust in the balance whether the slavery be bred at home, or comes from abroad; be of their own suffering, or of a stranger's imposing. (3649-56)

워즈워스는 썬트라조약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조약을 주도한 영국 지배층의 무지와 무능력, 그리고 그에 대조되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민중의 위대함을 절절하게 주장했다. 그토록 무지하고 무능한 영국 지배층과 나폴레옹의 전쟁이 양쪽 민중의 희생을 전제로 한 그들만의 ‘국익’을 위한 싸움이었다면, 침략자 나폴레옹에 대한 스페인 민중의 저항과 봉기는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도덕적 투쟁이었다.

이들이 지키고자 했던 자유와 정의의 가치는 아이러니하게도 나폴레옹 자신이 애당초 지키고자 했던 바로 그 공화국의 이념이었고, 그렇게 때문에 스페인 민중들의 저항과 투쟁은 나폴레옹으로부터 스페인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으며, 동시에 나폴레옹으로부터 공화국 프랑스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 스페인 민중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저항운동에서 발휘했던 ‘애국심’은 버크의 애국심처럼 자기 지역에 대한 자연스러운 애정에 입각한 것이었지만, 버크의 경우와는 반대로 자유와 정의라는 세계시민적 가치를 지향했다. 워즈워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자기의 애국심이 봉착했던 도덕적 고민의 탈출구를 발견했고, 자기 자신을 스페인 민중들과 동일시하면서 버크에게 기울어있던 자기 애국심의 균형추를 다시 프라이어 쪽으로 되돌려놓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워즈워스는 지배층이 말하는 ‘국익’의 추구가 도덕적 원칙과는 무관하게 다른 나라의 ‘국익’과 영원한 적대적 경쟁을 강요하는 데 반해, 민중의 ‘이익’은 보편적이고 호혜적인 국제질서와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깨닫기도 했다. 코올리지의 생각에 진정한 ‘애국자’는 단지 급진적 정치이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적 편견을 넘어서는 것, 즉 민중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마음깊이 받아들이는 것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워즈워스는 스페인 민중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를 통해서 코올리지가 말하는 이러한 ‘현대적 애국자’의 조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것은 결국 그동안 잊고 있었던 공화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워즈워스가 스페인 민중의 투쟁에서 목격한 민중의 정치적 잠재력은 결국 민중적 민주주의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까지 발전하는데, 이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민족자결주의, 민주주권론이라고 부르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예언적 통찰로 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적어도 1808년에 썼던 이 글 안에서는 ‘변절’을 의심받던 공화주의자 워즈워스가 스페인 민중들의 애국심에 힘입어 일시적이거나 공화주의적이고 세계시민적인 애국심을 온전하게 복원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Coleman 154-55).

X. 맺음말

우리가 지금까지 워즈워스의 애국심에 관하여 확인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790년대 초반에 보여준 그의 애국심은 공화주의적 원칙에 철저한 애국심으로서 프라이스가 말한 세계시민주의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었다. 둘째, 1802년 아미앵조약 이후, 특히 1804년에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에는 그의 공화주의적 신념이 크게 약화되었고, 따라서 그 시기에 쓰인 1805년 판 『서곡』의 서술에는 생물학적 유대관계와 토착적 정서에 의존하는 버크적 애국심의 수사법이 상당히 깊이 개입되어있다. 셋째, 워즈워스는 1808년부터 전개된 스페인의 민중 봉기와 포르투갈 민중의 저항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으며, 그 이후 영국의 개입으로 신티라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은 워즈워스로 하여금 큰 분노와 함께 버크적 애국심이 가진 계급적 편향성과 부도덕성을 충격적으로 자각하도록 만들었다. 넷째, 그 결과 적어도 『신티라조약에 관하여』에서 표현된 워즈워스의 애국심만큼은 프라이스적 ‘보편적 자애심’에 뒤

받침되는 세계시민주의적 애국심의 면모를 상당 부분 회복했다.

워즈워스 애국심의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워즈워스가 1808년에 이르러 다시 공화주의적 애국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워즈워스의 이러한 진보적 관점은 『쾨트라조약에 관하여』에서 반짝 되살아났다 하더라도 나폴레옹의 패전 이후에는 앞에 인용한 「송가」에서 드러나듯, 버크의 보수적 감성을 능가할 만큼 국수주의적 색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애국심과 관련된 그 당시의 언술행위의 맥락과 그 안에서 드러나는 워즈워스 애국심의 변천과정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애국심의 정치적 의미란 어차피 그것이 놓여있는 이념적 환경에 따라, 혹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에서 우로, 또 우에서 좌로 완전히 달리 평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른바 ‘도덕적으로 건전한’ 애국심이 존재하려면, 그것은 우선 자연과 혈연 같은 우연적 요소나 특정한 계급을 위해 만들어진 정파적 논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자애심’과 같은 보편타당한 원칙에 확고하게 입각해야 한다. 그러한 원칙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지역을 막론하고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해야 하고, 특정한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역사 전체에 유효한 원칙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잠깐 살펴본 워즈워스의 애국심의 변천과정이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이론상 보편타당한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론적 정당성만 가지고 현실에서 선한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애국심을 뒷받침하는 원칙들이 그 자체로 아무리 큰 도덕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보

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어떤 정책이나 정치적 행동으로 구현되었을 때 대다수의 민중들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의 여부라는 것이다. 가령 스페인 민중들의 애국심이 나폴레옹군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고 했을 때, 그들의 애국심이 ‘도덕적으로 건강한’ 이유는 그것이 스페인민중의 자유와 독립에 기여하기 때문이었다. 쥘트라조약이 영국의 단기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도한 달림폴과 버라드의 ‘애국심’이 자국에서조차 도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그것이 결국 포르투갈 민중의 자유와 독립에도, 영국민중의 ‘이익’에도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코올리지가 『현대적 애국심』에서 중산층 개혁가들의 위선적 애국심을 비판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었다. 다시 말하면 대다수 민중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는 설령 애국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정치적 진보성이나 이론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나라 민중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그리고 그 옆 나라들의 민중에게도 얼마나 ‘함께’ 이익이 되는지, 그것이 특정한 시대를 넘어 인류 역사 전체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며, 그렇게 될 수 없다면 어떤 정파의 어떤 애국심도 위선이거나 정치적 선동전략으로 끝나고 말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쥘트라조약에 관하여』에 드러난 위즈워스의 애국심은 민중에 대한 깊은 공감을 통해 그러한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애국심에 대한 감동적인 예증이었다.

인용 문헌

- 곽준혁. 「민족주의 없는 애국심과 비지배 평화원칙」. 『아세아연구』 46.4 (2003): 311-40.
- 박찬길. 「윌리엄 워즈워스의 급진적 정치관 재론」. 『안과밖』 1 (1996): 214-40.
- Bainbridge, Simon John Julian. “Wordsworth’s Political Odyssey.” *The Oxford Handbook of William Wordsworth*. Eds. Richard Gravil, Daniel Robinson. Oxford: Oxford UP, 2015. 116-35.
- Bromwich, David. “Romantic Nationalism and the Convention of Cintra.” *Studies in Romanticism* 49.4 (2010): 601-10.
- Brownlow, Anne E. “Eighteenth Century English Patriotism and the French Revolution.” *History of European Ideas* 15.1 (1992): 289-96.
- Burke, Edmund. *Burke: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Ed. Conor Cruise O’Brien. Harmondsworth: Penguin, 1968.
- Coleman, Deirdre. “Re-Living Jacobinism: Wordsworth and the Convention of Cintra.” *Yearbook of English Studies* 19 (1989): 144-61.
- Coleridge, Samuel Taylor. *The Collected Works of Samuel Taylor Coleridge. The Watchman*. Ed. Lewis Patt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9.
- Colley, Linda. “Radical patriotism in eighteenth century England.” *Patriotism: the making and unmaking of British national identity*.

- Volume I, History and Politics*. Ed. Raphael Samuel. London: Routledge, 2017. 169-87.
- Commissiong, Anand Bertrand. “Cosmopolitan Patriotism.” *PB & J: Politics, Bureaucracy, and Justice* 4.2 (2014): 34-42.
- Connell, Philip. “Wordsworth’s ‘Sonnets Dedicated to Liberty’ and the British Revolutionary Past.” *ELH: English Literary History* 85.3 (2018): 747-74.
- Cottrell, Stella. “The Devil on two sticks: franco-phobia in 1803.” *Patriotism: the making and unmaking of British national identity. Volume I, History and Politics*. Ed. Raphael Samuel. London: Routledge, 2017. 259-74.
- Cronin, Richard. “Wordsworth’s Poems of 1807 and the War Against Napoleon.” *Review of English Studies* 48.189 (1997): 33-50.
- Cunningham, Hugh. “The Language of Patriotism, 1750-1914.” *History Workshop* 12 (1981): 8-33.
- Dacey, A. V. “Introduction.” *Wordsworth’s Tract on the Convention of Cintra*. Ed. A. V. Dacey. London: Humphrey Milford, 1915. vii-xi.
- Dietz, M. G. “Patriotism.” *Patriotism*. Ed. Igor Primoratz. New York: Humanity, 2002. 177-93.
- Espindola, Juan. “A Criticism of Edmund Burke’s Conception of Patriotism.” *Tópicos, Resvista de Filosofía* 46 (2014): 121-49.
- Gravil, Richard. “Wordsworth as Partisan.” *Concerning the Convention of Cintra: A Critical Edition*. Ed. Richard Gravil, W. J. B. Owen, and Simon Bainbridge. Penrith: Humanities-Ebooks, 2009. 16-29.

- Green, Georgina. "The People and the Poet Redeemed: William Wordsworth and the Peninsular Uprising." *ELH* 79 (2012): 935-62.
- Griffin, Dustin H. *Patriotism and Poetry in Eighteenth-Century Britain*. Cambridge: Cambridge UP, 2005.
- Magnuson, Paul. "The Politics of 'Frost at Midnight.'" *Bloom's Modern Critical Views: Samuel Taylor Coleridge New Edition*. Ed. & Intro. Harold Bloom. New York: Infobase, 2019. 51-70.
- Moorman, Mary. *William Wordsworth: A Biography: The Early Years, 1770-1803*. London: Oxford UP, 1968.
- Mori, Jennifer. "Languages of Loyalism: Patriotism, Nationhood and the State in the 1790s."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118.475 (2003): 33-58.
- Nussbaum, Martha. "Patriotism and Cosmopolitanism." *For Love of Country?* Ed. Joshua Cohen. Boston, Mass: Beacon, 2010. 3-17.
- Price, Richard. "A Discourse on the Love of our Country." *Richard Price: Political Writings*. Ed. D. O. Thomas. Cambridge: Cambridge UP, 1991. 176-96.
- Primoratz, Igor. *Patriotism*. Amherst: Humanity, 2009.
- _____. "Patriotism."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17 Sep. 2019.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spr2019/entries/patriotism/>>.
- Primoratz, Igor, and Aleksandar Pavković, eds. *Patriotism: Philosophic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Aldershot: Ashgate, 2008.
- Radcliffe, Evan. "Burke, Radical Cosmopolitanism, and the Debates on

- Patriotism in the 1790s.” *Studies in Eighteenth-Century Culture* 28 (1999): 311-39.
- Thompson, E. P. “Wordsworth’s Crisis.” *The Romantics: England in a Revolutionary Age*. New York: New Press, 1997. 75-95.
- Vincent, Patrick. “Sleep or Death?: Republicanism in *The Convention of Cintra*.” *Concerning the Convention of Cintra: A Critical Edition*. Eds. Richard Gravil, W. J. B. Owen, and Simon Bainbridge. Penrith: Humanities-Ebooks, 2009. 53-62.
- Woof, Robert. Ed. *William Wordsworth: The Critical Heritage, Vol. 1: 1793-1820*. London: Routledge, 2004.
- Wordsworth, William. *Poems, Volume II*. Ed. John O. Hayden. Harmondsworth: Penguin, 1977.
- _____. *The Prelude: A Parallel Text*. Ed. J. C. Maxwell. Harmondsworth: Penguin, 1988.
- _____. *Concerning the Convention of Cintra: A Critical Edition*. Ed. Richard Gravil, W. J. B. Owen, and Simon Bainbridge. Penrith: Humanities-Ebooks, 2009.

Wordsworth's Patriotism in *Concerning the Convention of Cintra*

Chankil Park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Wordsworth's idea of patriotism in his *Concerning The Convention of Cintra* (1809) in the context of the political debate between Richard Price and Edmund Burke over the nature of patriotism. I survey the idea of patriot from its Greco-Roman etymology to its various usages in 18th-century Britain before comparing Price's idea of cosmopolitan patriotism based on "universal benevolence" with Burke's "chivalric" patriotism based on filial love and regional loyalty. I then turn to Coleridge's idea of "modern patriotism," which illuminates the cosmopolitan aspects of Wordsworth's patriotism in the early 1790s. A passage in Wordsworth's *The Prelude* (1805) agonizingly recollects the moment of moral dilemma in 1793 when he heard the news of the debacle of the British army. His use of Burkean expressions such as "this most unnatural strife" and "the blessed tree of my beloved country" clearly indicate that his cosmopolitan patriotism was seriously weakened in the aftermath of Napoleon's coronation in 1804. This position, however, was decisively reversed four years later in his *Concerning The Convention of Cintra* where he reaffirms his republican sympathy in his enthusiastic support for the Spanish-Portuguese people's brave resistance to the invading Napoleonic army, reclaiming the

cosmopolitan patriotism he had begun to lose sight of when he began to be disillusioned with the French Revolution.

Key Words

Wordsworth, Patriotism, Cosmopolitanism, *Concerning the Convention of Cintra*, Richard Price, Edmund Burke, Spanish Uprising, The Napoleonic Wars

접수일: 2019년 11월 1일

심사완료일: 2019년 11월 22일

게재확정일: 2019년 11월 24일